

(2) 복 날

뚜렷한 절일은 아니나 6월에는 복날이 있다. 하지로부터 셋째 경일(庚日)이 지난 날이 초복이고 다시 10일이 지나면 중복, 또다시 열흘이 지나면 말복이 된다. 말복은 월복하여 중복으로부터 20일째 되는 날일 수도 있다. 복날에는 '복다름'이라 하여 여름의 찌는 더위에 탈진할 것을 염려하여 부모님께 국수와 닭고기, 쇠고기 등을 대접한다. 또한 이날 보신을 한다 하여 개를 잡아 먹는다. 속담에 '복날 개 패듯 한다'는 말이 여기에서 연유되었다.